

구세군 한국선교 100주년... 자선냄비 모금 광주 이기풍 사관

“경제불황이라고 온정 식지 않아요”



11일 오후 광주우체국 앞에서 시종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간 이기풍 구세군 사관.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세상을 구하는 군대’라는 뜻을 가진 구세군이 올해도 어김없이 종소리를 울리며 길 위로 나섰다.

4년째 광주에서 구세군으로 활동 중인 이기풍(53) 사관이 11일 오후 2시 광주 총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종식을 갖고 오는 24일까지 본격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인다.

이 사관은 “경제불황 때문에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사회가 희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면서 “구세군도 생명, 희생, 나눔 정신을 실천해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목표모금액 1천600만원

특히 올해는 구세군이 한국 땅을 밟은 지 100년, 자선냄비가 등장한 지 8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 각자가 더욱 새롭다.

이 사관은 “구세군 한국 선교를 기념해 서울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치렀지만 광주에서는 백내장으로 고통받는 독거노인 4명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00주년을 대신했다”면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돼

나눔활동을 펼치는 것이 바로 구세군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광주 구세군 목표모금액은 모두 1천600만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목표 모금액(1천500만원)보다 100만원을 더 늘렸다.

나눔 정신 자체가 감동

이 사관은 “자선냄비 80년 역사 동안 전년보다 모금액이 줄어든 적은 없었다”면서 “이달 초 활동에 나선 서울 구세군도 생각보다 모금실적이 좋아 낙관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경제불황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함께 모금활동을 펼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현재 자원봉사를 나선 사람이 많지 않다. 10여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지만 올해는 7명이 전부다.

게다가 구세군 자선냄비를 신청해 자체적으로 모금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뜸하다. 어려울 때 일수록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생각에 올해는 모금 장소를 늘렸다. 지난해 총장로 우체국 앞과 메가박스 사거

리 2곳에 설치했던 자선냄비를 올해는 금남로 2가 버스정류장 앞(무인 자선냄비)과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 앞에도 설치했다.

지난 1982년 과천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7년째 목회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관은 “온 종일 추위에 떨어야 하고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상대하는 등 힘들 때도 있지만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힘든 줄 모른다”고 웃으며 말했다.

한편 광주 구세군 교회는 모금활동을 펼칠 자원봉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문의 062-362-9191.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구세군(救世軍)=1865년 영국의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가 빈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창설한 ‘기독교 선교회’. 1878년 군대식 제도를 도입해 ‘구세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자선활동을 벌였다.

한국 구세군은 1908년 10월 영국 선교사 로버트 허가드 사관 일행이 서울 서대문구 평동에 본영을 세운 게 첫 출발이다. 현재 전국 240여개 교회와 719명의 성직자, 10만여명의 신자를 가진 교단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열린 제11회 국제가족 친선의 밤 행사 모습.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제공)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국제가족 친선의 밤

13일 광주 메리어트 웨딩홀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광주·전남협회(회장 이풍룡)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13일 오후 4시 30분 광주 메리어트 웨딩홀에서 기념행사와 ‘제12회 국제가족 친선의 밤’을 연다.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20여 개 국가의 전통 악기 연주, 전통의상 패션쇼,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네스코 클럽 회원,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캐나다, 네덜, 루마니아 등 20여 개 국 출신 외국인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풍룡 회장은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국제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네스코는 1945년 11월 16일 37개국 대표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하면서 공식 창설됐다.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는 1965년 12월에 창설돼 매년 20여 개 국가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70여 개 학교에서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카라바조와 렘브란트, 루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정진석 추기경 ‘...성왕 다윗’ 출간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사진) 추기경은 6년째 12월 초순에 책을 펴내고 있다. 올해도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성왕 다윗’(가톨릭출판사)이라는 책을 냈다.

지난 1955년 번역서인 ‘성녀 마리아 고레티’를 처음 낸 이후 올해 15권 짜리 출간한 ‘교회법 해설’까지 포함해 역시 13권, 저서 35권 등 모두 48권의 책을 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는 12월에 책을 내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매년 6월 말을 전후해 마무리한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 편집 작업을 거치면 12월이 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성왕 다윗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까지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소개하고 아울러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 궤적이 많은 가족사, 성전 건축의 염원을 품은 채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 등을 담았다. 특히 카라바조와 렘브란트, 루벤



스, 안젤리코 등 중세 거장이 그린 성왕 22장을 주요 대목의 삽화로 곁들여 이해를 돕고 한편으로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또 성경에 나오지 않은 대화라든가 배경 설명 등은 정 추기경이 평소 묵상과 기도를 통해 얻은 것을 소설 형식으로 삼입해 천주교에 갖 밀접한 신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독서와 기도 등으로 얻은 교훈과 깨달음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자 이번 와중에 짬을 내 책을 내고 있다”면서 “부제 시절 매년 책을 한 권씩 쓰겠다고 롬메이트와 한 약속이 매년 책을 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연필뉴스

종교칼럼



박병주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소리는 눈 구멍이 속에서 들리는 거였어. 아이를 눈에서 깨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군병사는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웃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였기 때문이지. 파란 가건 어머니가 갖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고 허리를 구부려 끌어안은 채 얼어 죽었던 거야. 그 모습에 감동

사랑 치유 그리고 회복

했던 미군병사는 상황이 급박하여 언 땅을 파고 그 자리에 시신을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

그 아이가 자라 청년이 돼서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었고 마침내 알몸이 되었다. 그리고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모두 치우고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 드리는 듯 말이다. 그리고선 무덤 앞에 쓰러져 통곡을 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웠어요? 오늘 나보다 더 추웠지요?” 아프리카에서 일생동안 사랑을 실천했던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말씀처럼 사랑을 감동시킬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가시적인 조건과 상황을 넘을 수 있는 힘, 가장 어렵적이고 숭고한 것은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로새서 3장 13-14절)”라는 구절이 있다. 사랑을 실천할 때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연말을 맞아 가족은 물론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광주열린교회 담임목사>

복지부-네이버 ‘자원봉사 주선’ 업무 협약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자원봉사를 주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된 전국 1만2천여 명의 자원봉사 요원을 네이버의 ‘해피빈 자원봉사 일감나누기’ 사이트에 투입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네티즌들의 교육과 관련, 일감 분배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네이버는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사이버 머니 등을 제공한다. /연필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 listings featuring the '영화안내' (Movie Guide) logo and various cinema listings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eca Grand, Hami Cinema, and Zeil Cinema, includ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